



## 2016년 겨울방학 <독서 워크숍> 운영 보고

● ● ●  
박 미 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2016년 겨울방학 독서 워크숍은 글쓰기교실에서 학생들의 독서 능력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기획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글쓰기교실은 2013년 겨울방학부터 매 방학마다 6회 이상의 일대일 대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를 지도하는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튜터 수에 비해 신청자 수가 매우 많아 신청한 학생들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글쓰기교실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 분석하는 법과 서평 작성법을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소화하면서 일대일 지도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토론 활동과 상호 평가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 끝에 소규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이를 서평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독서 워크숍이 기획되었다.

2016년 겨울방학 독서 워크숍은 ‘문학 독서’, ‘사회과학 독서(1)’, ‘사회과학 독서(2)’의 세 파트로 진행되었으며, 각 파트 당 5~6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문학 독서 파트는 김연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사회과학 독서(1) 파트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사회과학 독서(2) 파트는 강원택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을 지정 도서로 선정하였다.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각 파트별로 세 번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담당 강사에게 서평 쓰기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3회의 워크숍과 3회의 일대일 상담을 병행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독서 워크숍 파트1은 문학 분야의 작품 읽기를 목표로 개설되었고, 김연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2015, 문학동네)을 지정도서로 선정하였다. 고전에 해당하는 작품을 선

택했을 때 자칫 학생들이 고전의 무게와 해석의 역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유로운 독서를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 소설 중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가능한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인 독서를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워크숍은 아직 학생들이 작품을 읽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평 쓰기에 대한 담당 강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실습 활동으로 서평 예시 글을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서평 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워크숍은 학생들이 책을 읽어온 후 책의 내용 및 자신의 관점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해외 입양아의 정체성,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시선, 추리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의 의미를 읽어내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거나 심화하며 서평의 주제를 선정하고 다듬어 갈 수 있었다. 이후 학생들은 워크숍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서평의 개요를 강사에게 지도받은 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서평 초고를 발표하였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초고 및 완성본에 대한 일대일 상담이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하나의 작품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토의하며 서평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여러 시선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독서 워크숍 파트2는 사회과학 분야 고전 읽기를 목표로 개설되었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1996, 한길사)을 지정도서로 선정하였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두루 읽히는 작품인 만큼 독서 및 서평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 역시 높아서 파트 당 선정 기준이었던 6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의 학생들(약 20명)이 해당 파트에 신청하였다. 신청서 내용으로 추정컨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의 확대 등 정치적 관심의 고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강사는 학기 중 글쓰기교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은 학생들에게 방학 중 독서 워크숍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워크숍에 참가할 학생은 전공과 학번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총 3회로 구성된 워크숍은 대체로 강사가 주도하는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첫 번째 시간은 참석자들이 간략히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렌트의 사상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상식적인 관념을 전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도입 방식을 택하였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렌트의 문제의 식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독서가 시작된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간혹 독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체로 새롭게 접하는 사상에 대

해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강사는 의도적으로 저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관점이 쉽게 기각될 수 없는 것임을 보이려고 했다. 토론은 대체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현실의 사례들도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서 워크숍 파트3 또한 사회과학 분야 저서를 대상으로 서평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워크숍에서는 특히 현실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어보고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2016, 이와우)을 지정도서로 선정하였다. 이 저서는 현재 정치권 및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통치체제의 변경, 즉 개헌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통치체제가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보다 조용할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통치체제가 한국의 더 나은 정치적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내각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통치체제에 대한 면밀한 고찰,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개헌이라는 당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고려할 때, 이 저서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3회에 걸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회는 서평쓰기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평이 어떠한 성격의 글인지, 서평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서평의 주제 선정 및 개요 작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지정도서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토론은 활발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 그리고 학문적, 이론적 이해도를 잘 알 수 있었다.

워크숍이 종료된 후에는 각 학생별로 3회에 걸쳐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지정도서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서평의 주제 선정, 개요 작성, 그리고 본문의 작성 및 수정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발전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서평을 완성하였다. 해당 워크숍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온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게 진행하는 형태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강의, 토론, 서평 작성의 전 과정이 모두 건설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독서 워크숍은 운영상의 어려움 또한 노정하였다. 워크숍의 운영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3회의 워크숍만으로는 당초 독서 워크숍이 목표로 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에게 대상 도서가 사전에 제시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를 읽고 첫 번째 워크숍에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회에는 서평 작성법에 대한 강의 및 대상 도

서에 대한 소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후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책을 소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서 워크숍은 적어도 4회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독서 토론에 더하여 책에 대한 요약 및 정리, 자료 조사, 개요 작성, 초고 작성, 완성본 작성이라는 단계별 서평 쓰기를 원활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워크숍의 횟수를 늘려서 작품 이해와 서평 작성에 보다 여유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상이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독서와 서평 작성이라는 두 과업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노하우도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 워크숍 이후에는 아직 학생들의 독서가 완료되지 않아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은 두 번째 워크숍 이후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문학 독서 파트의 경우 워크숍은 1월에 마무리되었으나 완성본에 대한 글쓰기 상담은 2월까지 진행되는 등 상담 일정이 뒤로 미뤄져 독서 과정과 글쓰기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사회과학 독서(2) 파트 또한 3회의 워크숍이 모두 진행된 다음에 3회의 개인별 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독서 과정과 서평 쓰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어려웠다. 사회과학 독서(1) 파트의 경우 서평쓰기 개별 상담에서 실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고전이 주는 부담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의 경우 책 한 권을 꼼꼼히 완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단기간 내에 서평까지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수 있다. 또한 아렌트 사상이 많은 이들의 상식적인 관념을 허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한 학생들로서는 이를 쉽게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여 글을 쓰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다. 독서와 글쓰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정 도서의 성격에 따른 학생들의 독서 과정과 이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워크숍의 횟수뿐만 아니라 일대일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 및 횟수에 대한 논의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지점들에 더하여 가장 근본적으로는 독서 워크숍이 ‘읽기’와 ‘쓰기’의 연계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읽힐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처음 진행된 이번 독서 워크숍은 문학 독서 파트와 사회과학 독서 파트로 분야가 한정되었지만, 소설 작품,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 사회과학 연구서로 대상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읽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의 읽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독서 워크숍의 내용을 다각화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기-쓰기의 통합 교육이 필요한 바,



‘독서’와 ‘글쓰기’ 모두에 초점을 맞춘 독서 워크숍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읽기와 쓰기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16년 겨울방학에 처음 진행된 글쓰기교실의 독서 워크숍은 학생 상호간의 독서 토론 및 튜터와의 일대일 상담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읽기를 독려하고 쓰기 능력을 진작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밀착하여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기는 어려운 교과 과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학생들의 비판적 읽기 능력과 사고 능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